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22 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녹) 연중 제 22 주일 (23. 9. 3.)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충실한 참제자로서 주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예레미야서 20,7-9):

7 주님, 당신께서 저를 피시어 저는 그 꾀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8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9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뺨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디 내지 못하겠습니다.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2,1-2):

1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2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 복음(마태복음 16,21-27):

그때에 2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

하였다.

“갑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미사 전례

본기도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쁨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가난의 정신을 되새겨 주시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성자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존중하며 참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제도 안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소서.

4.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와 함께하시어, 피조물 보호의 날에 한 다짐들을 기억하며 유한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 성가 ♪

입당 : 34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 163 (생명의 성체여) / 168 (오묘하온 성체)
파견 : 283 (순교자 찬가)

공지 사항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 안내서 배부

- 2016년 4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가경자 (Venerabile, 복자 전 단계)로 선포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 제작된 전구 기도문을 배부해드립니다.
- 순교자 성월을 맞아 특별히 순교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면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본당 25주년 기념 전신자 성경 필사

- 시행 기간 : 2023.06.04. ~ 2023.09.04.
- 각 구역장님께서 완성된 필사본을 수합하여 다음 주일(10일)에 본당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9월 본당의 날 미사 때 필사본 성경 봉헌식이 있겠습니다.

♣ 예비자 교리 안내

- 일시 : 9월 10일부터, 매주 주일 09:30분
- 장소 : 오라토리오

♣ 김,미역 선물

- 각 가정당 김 1봉지, 미역 1봉지
- 청년구역은 길다란 김 1봉지

♣ 모임/회의

- 다음 주일(10일) 미사 후, 사목평의회

♣ 봉사자

	오늘 주일(3일)	다음 주일(10일)
제1독서	허희숙마리아	강한프란체스코
제2독서	권혜림세레나	박수정클라라
복사		
계단·화장실	허희숙마리아	강한프란체스코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05.00 • 교무금 € 0.00